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토포교보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무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5,1-7

화답송 |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ㄴ 참조)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

제2독서 | 필리 4,6-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1,33-43

영성체송 |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성가 | 입당 77 예물준비 340(332)
영성체 499(496) 파견 27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Daria Serkov

생미사 지향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건강
- 맨하탄 성당 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 박근형, 우유진, 박보성 가브리엘 천사들의 축일 축하
- 고영덕 가브리엘 축일 축하
- 이승권 미카엘 축일/생일 축하
- 민재인, 김지영, 최미양 영육 건강
- 문상민 안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윤숙경 마리아 다리 치유 위해
- 이승권 미카엘 축일 축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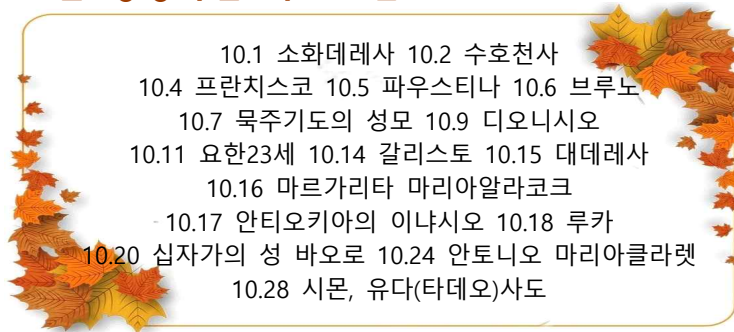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마태 21,42)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4일	김진섭	민완준	민덕미	민완준 민덕미	김종선 정다경	한서희 최예준 양지수 이예진 허우현
10월 11일	정유진	국민준	이경자	국민준 이경자	유정옥 이영혜	김도이 허강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10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다.

본당 행사로 **10월 11일**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25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4/25(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10/4: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 달 동안 8:50AM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영성의 해' 제5차 특강

10/11 (주일)	아래성당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

겨울철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Free Flu Shot)

일시: 10월 18일(주일) 10:20AM-2:00PM(주일미사 후)

장소: 산 다미아노홀

주최: "Linda" from Walgreens(pharmacy store)

준비물: 본인 ID or 의료보험증(소지한 사람의 경우)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인원 파악을 위해 **10/4(산 다미아노 홀) 희망자 명단**을 받겠습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 코리안 오피스에 **독감예방접종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면 당일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보험 소지하신 분들은 코로나와 폐렴 예방 접종**도 가능합니다.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준비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자 전 신자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모님의 전구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어린 기도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기간: 26년 10월 4일부터 ~

이번 주: 00 단 총 집계: 00 단

주관: 맨하탄 한인공동체 꾸리아(Curia)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회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nyc.org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고성대 베드로
(? ~1816)



‘여빈’이라고도 불린 고성대 베드로는 충청도 덕산 별암(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본래 성격이 포악했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화하게 변했으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평생 동정을 지키며 아우 고성운 요셉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을 권면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 고산 저구리로 이주한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했으나 목숨을 보전하려는 마음에 굴복해 석방되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보속의 삶을 살았고, 아우와 함께 청송 노래산 교우촌으로 이주하였다.

1815년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던 중 아우와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혹독한 형벌에도 신앙을 지킨 그는 대구로 이송되어 17개월 넘게 옥고를 치렀다. 끝까지 배교를 거부한 고 베드로는 1816년 12월 19일 아우와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친척과 교우들이 거두어 안장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2, 가해, 2026. 09.27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RESTORE STUDIOS

Dr. Iris M. Kim, PhD

▶ 레드라이트 테라피

▶ BREATHWORK

▶ 컴프레션 마사지

▶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수녀회 한국 진출 40주년을 기념할 때, 초창기에 선교사로 오셨던 수녀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40주년이 되던 날 전야에 그 수녀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한 분씩 짧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소자들이 많던 처음 15년간 수련장이셨던 수녀님께서는 “수녀님은 저희 대부분의 수련장이셨습니다. 저희 안에 수녀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때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우리도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코린토 신자들의 관계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에서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신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은 바오로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를 보낸 다음에 사도와 코린토 신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오로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와서 그를 비방했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토가 코린토를 방문한 다음 바오로 사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자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를 찾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는 그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서 쓴 편지입니다. 위태로운 순간은 좀 지나갔다 해도, 코린토 신자들 사이에서 바오로 사도라는 인물에 대해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앞부분에서는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바오로 사도와 그의 사도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추천서가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에게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2코린 3,2),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2코린 3,3)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신이 바오로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아 신자가 되었고 코린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으므로, 바오로에 대해 의심하고 그를 슬프게 했던 그 신자들 자신과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는 사실이 그가 코린토에서 했던 일들을 증언해 줍니다. 이것은 코린토 신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바오로는 자신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에

대해 그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2코린 4,7)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오로는 뛰어난 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와 비교해도,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오로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리스어를 알고, 교육 수준이나 활동 범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도의 직분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환난을 겪어냈으므로 하느님 앞에서 많은 공로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러한 직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훌륭해서 하느님께 뽑혔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0, 2026, 가해, 2026. 09. 13.



* 출처: <서울주보>, 제2634호, 2026년 10월 4일

< 사막에서 하느님과의 함께 피정 >

- * 일시: 2026년 11/16(일) ~ 11/21(토)
-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Center, Gallup, New Mexico
- * 피정 지도: 이 소피아 수녀
- * 협력사제: 김윤곤 아드리아노 신부님
- * 피정비: 700불(수익금 일체는 원주민 사목에 쓰임)
- * 문의: 이소피아 수녀.

Cell:718-690-6093, sofiasfma@gmail.com

♠공항에서 피정의 집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입니다. 피정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하는 날 오후 2시까지 ABQ, NM 공항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마치는 날 1시 이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